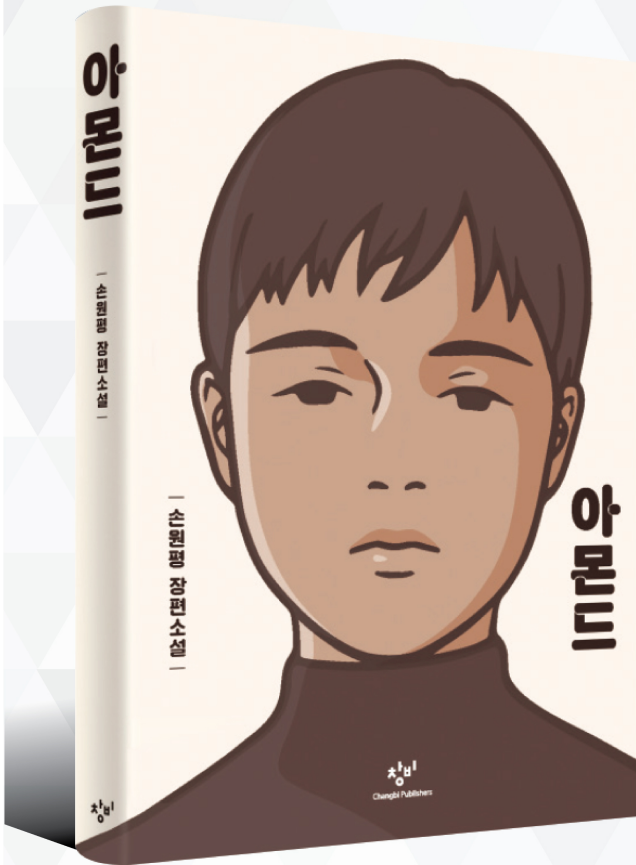


One Book One City Yeonsu

연수구 한 도시 한 책 읽기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

연수구 「한 도시 한 책 읽기」
2018년 올해의 한 책
손원평, <아몬드>

당신의 아몬드는 안녕하신가요?

*아몬드: 누구나 머릿속에 두 개 가지고 있다.

아몬드는 뇌 구조의 일부인 '편도체'를 부르는 말로, 작은 구형의 아몬드(almond)처럼 생겼다고 해서 "amygdala"라는 이름이 붙었다. 공포나 화 등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 불능 사회, 차가움을 녹이는 아몬드

공감을 잃어버린 시대에, 이 소설은 우리에게 타자를 상기시키고 고통을 표현하며 다른 삶을 상상하게 한다. 비극적인 존재들이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고통 위를 기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감케 한다. ... 신체는 커 버렸지만 감정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실, 『아몬드』는 고통과 공감의 능력을 깨우치게 할 강력한 소설!

출판평론가 한 기 호

한책독서킬레이 · 북토크 · 북콘서트 · 테마영화제등

주 관 | 연수구립공공도서관

문 의 | 연수청학도서관 032-749-8262

BOOK
연수구 한 도시 한 책 읽기

One Book One City Yeonsu

연수구 한 도시 한 책 읽기

연수구립공공도서관

BOOK
연수구 한 도시 한 책 읽기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

연수구 「한 도시 한 책 읽기」
2018년 올해의 한 책
손원평, <아몬드>

당신의 아몬드는 안녕하십니까?

*아몬드: 누구나 머릿속에 두 개 가지고 있다.

아몬드는 뇌 구조의 일부인 '편도체'를 부르는 말로, 작은 구형의 아몬드(almond)처럼 생겼다고 해서 "amygdala"라는 이름이 붙었다. 공포나 화 등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도시 한 책 읽기(One Book, One City)란?

한 도시에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토론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개하는 독서캠페인으로, 세대와 소속에 상관없이 같은 책을 읽고 공감·소통하며 개인적 차원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018년 올해의 한 책, 손원평 <아몬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아몬드』의 주인공 '윤재'는 감정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독특한 캐릭터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이면을 읽어 내지 못하고 공포도 분노도 잘 느끼지 못하는 윤재는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가까스로 버텨 오고 있다. 엄마에게서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호의를 보이면 고맙다고 말하는 식의 '주입식' 감정 교육을 받기도 한다. 세상을 곧이곧대로만 보는 아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윤재는 어느 날 비극적인 사건을 맞아 가족을 잃게 되면서 이 세상에 홀로 남는데...

한 책을 함께 읽기 위한, 독서 릴레이

- 가족, 친구, 학급, 직장동료, 동아리 등의 그룹이 릴레이로 독서
- 대 상 : 중학생 이상, 5인 이상의 단체
- 참가방법

- 1_ 그룹의 첫 주자가 도서관 홈페이지로 신청 후, 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대출 (연수청학·연수어린이·송도국제어린이·해운도서관)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 ▶ 프로그램 신청 <http://www.yspubliclib.go.kr/>)
- 2_ 읽고 나서 한 줄 서평 기록 후, 다음 주자에게 도서 바톤 터치
- 3_ 마지막 주자는 도서관에 도서 반납

한 책을 읽고 나누는 북 토크

- 그룹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북 토크 진행
- 전문 토론 강사와 함께 하는 북 토크(도서관 홈페이지 신청)